

# 제5장 관광·레저

## 제1절 포항의 관광개요

포항은 경북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1,126km<sup>2</sup>의 넓은 도시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동쪽으로는 울릉도, 독도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영덕, 청송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군위, 영천, 남서쪽은 천연고도 경주와 연결되어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 조건이 빼어나다. 또한 포항은 천혜의 해안선을 가진 해양경관의 보고이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114km의 해안선과 영덕, 울진과 연결되는 해양자원을 어떻게 디자인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가 포항관광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감포에서 구룡포까지 바닷가 도로에 펼쳐지는 풍광은 세계적인 미항인 나폴리, 시드니를 능가하는 아름답고 환상적 해양자원이다. 북부, 칠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여러 곳의 해수욕장과 국립 등대박물관, 호미곶 등의 해양관광자원은 포항의 대표적 관광 자원이다.

문화자원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7개이며 도지정문화재는 27개이다. 국보 제264호 영일 냉수리 신라비는 1989년에 발견된 것인데 당시 최고의 신라비로서 왕명을 다룬 신라초의 율령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한 내연산 보경사, 운제산 오어사, 도움산 천곡사, 비학산 법광사 등 천년사찰의 문화자원이 있다.

산업 관광자원으로 포스코, RIST, 방사광 가속기, 포항PT 등이 있으며, 사회 교육 관광자원으로 포스텍, 로봇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등을 관광자원화 해야 하며, 해병대 특수교육 훈련을 견학 및 체험 관광으로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포항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온천은 25℃~30℃로 형성된 저온천이지만 포항연산온천파크, 영일만온천, 오어사온천, 신광온천 등이 있어 잘 개발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산, 계곡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내연산 국립공원과 청하계곡, 운제산과 산어계곡, 죽장의 침곡산, 내연산의 동대산, 죽장의 가사천계곡, 죽장 자호천계곡, 하옥계곡, 무학사계곡 등이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공원으로는 호미곶 해맞이광장, 환호해맞이공원, 형산강둔치체육공원, 해도근린공원, 사방기념공원 등이 있어 주민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관광자원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축제로는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제, 일월문화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등이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포항을 상징하는 빛의 의미와 불을 테마로 포항시민이 하나되는 상생의 화합축제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국제불빛축제는 계속 개선되어 수백 만 명의 시민과 외지인이 찾아오고 있으며 축제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시민이 호응하는 기대되는 축제이다.

관광객수 현황추이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1993	921,265	891,849	27,421
1998	1,328,433	1,320,173	8,260
2000	1,326,668	1,317,149	9,519
2003	3,360,723	3,350,373	10,350
2005	6,151,198	6,142,123	9,400
2007	13,892,258	13,821,340	70,97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은 1993년 관광객수가 921,265명에서 2000년에는 1,326,668명으로 백만 명이 돌파되어 매년 포항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관광도시로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2007년에는 13,892,258명으로 1천만명 관광시대를 실현하였다. 더구나 외국인이 7만명이 넘어 포항관광의 글로벌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한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관광숙박업을 보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호텔 수는 변함없으나 객실은 295개에서 2007년 344개로 약간 증가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광의 매개수단인 여행업을 보면 1998년에는 일반 2개 업체, 국외 37개 업체, 국내 36개 업체로 총 75개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7년에는 일반 2개 업체, 국외 43개 업체, 국내 48개 업체로 총 93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는 포항의 관광숙박업이 도시 세력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머무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동빈내항을 살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 중인데, 동빈내항의 오염을 제거하고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도심의 청결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포항의 이미지가 색다르게 바뀌는 사업이다. 세계 각국에서

도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성공적인 도심 수변공간의 재개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운하를 건설하여 형산강과 연결, 환경오염을 제거하여 주변의 토지 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아름답게 재개발 된다면 관광도시 포항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관광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여 행 업			관광 숙박업	
		일 반	국 외	국 내	호 텔	객 실
1998		2	37	36	5	295
2000		2	36	45	5	291
2002		1	32	42	5	307
2004		2	35	43	4	253
2006		4	44	45	5	344
2007		2	43	48	5	344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죽도시장은 포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인데 그 중 어시장을 꼽을 수 있다.

동빈 내항은 포항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이고 죽도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워터프론트(waterfront)로서의 독특한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빈내항을 정화시키고 죽도 어시장을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포항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영일만대교는 현재 포항-울산-삼척을 연결하는 국도로 개발을 검토 중에 있는데, 동해안 일대의 유일한 대교로서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영일만에 사장 대교가 새롭게 건설되면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어 포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양관광 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2절 자연적 관광자원

자연적 관광자원과 인문적 관광자원이 있는데 포항지역의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표와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 지역축제 관광객이 3,247,288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관광객이 축제 중심으로 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 관광지의 해돋이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며 이어서 박물관, 관광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2,874,968	2,774,374	3,225,131	3,228,533	4,997,288
지역축제 관광객	500,000	600,000	600,000	8,001,000	3,247,288
주요관광지					
계	2,374,968	2,174,374	2,625,131	2,428,533	3,265,288
보 경 사	265,102	180,994	234,393	221,886	161,257
오 어 사	238,324	93,443	130,635	143,100	154,546
등대박물관	휴 관	휴 관	369,080	376,672	348,885
민속박물관	27,126	22,519	26,106	28,354	23,756
포 스 코	444,416	420,718	445,452	614,752	556,144
호미곶관광지	1,400,000	1,456,700	1,419,465	1,043,769	2,002,700

### 1. 내륙산악관광

내연산, 운제산 등 양호한 산림산악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내연산의 보경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사찰로써 주위에 12폭포가 있는 관광의 명소이다.

내연산은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걸쳐 등산할 수 있는 곳이다. 오어사가 있는 운제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내륙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흥계폭포가 있으며, 그 외도 하옥계곡, 청하계곡 등이 있다.

## 1) 온천 관광자원

포항지역은 온천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대부분 온천은 용출수온이 25℃~30℃의 저온이며 그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체 온천 공수 중 50%만 이용되고 있다. 포항온천은 수온이 높으며 이용허가량도 가장 많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다.

### (1) 영일만온천

대송면 대각리에 자리한 영일만 온천은 1987년 개발되었다. 1974년을 전후하여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영일만 지역에 대한 석유탐사 때 이 지역의 지열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온천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탐사작업을 해 오던 중, 1987년 6월 1일 대각리 325-1번지 시추 1호공에서 온천수를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영일만온천은 수온 33.4℃, 수소이온농도(pH) 9.43에 불소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이다. 칼슘·나트륨·철·칼륨·마그네슘·염소·황산·불소·아연·산화규소·리튬·라돈·게르마늄 등 다양한 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피로회복·피부미용·노화방지·신경통·관절염·심장병·간기능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 (2) 신광온천

비하산 자락의 만석마을 어귀에 자리잡은 포항신광온천은 예부터 온천수가 자연히 솟아나 인근의 땀띠 환자 등 피부질환자들이 이 물로 치유된 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으로 유명하다.

1994년도에 주위 마을의 식수가 부족하여 간이 상수도용 암반지하수를 개발하던 중 더운 물이 치솟아 온천수 부존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온천 굴착에 들어가 국립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온천수 부존이 확인되었다.

이듬해 영일군에 온천 발견을 신고하였고, 1995년 2월 23일 경상북도로부터 온천 지구로 지정되었다.

### (3) 연산온천파크

연산온천파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연산군립공원과 천년고찰 보경사가 바로 지척에 있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온천 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국도7호선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자원인 산·바다·온천이 어우러진 관광휴양명소로서 손색이 없다.

연산온천은 1972년부터 숙박시설·목욕탕 등 영업을 하던 중 목욕탕의 추가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를 착정·개발하다가 1997년 1월 온천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온천공예 대한 기본조사 및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온천수로 나타나 1999년 9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승인받았다.

온천수에는 라듐성분이 많고 나트륨·칼슘·마그네슘·칼륨·염소 등 몸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수온은 32.4℃로서 성분은 나트륨-중탄산(염소)형의 단순천 및 pH 8.9의 알카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각화증·만성습진 등의 피부염·만성 류마티즘·고혈압증·당뇨병 외 부인병·동맥경화·무좀 등에 뛰어난 효험이 있다고 한다.

#### (4) 포항온천

장성동 서지구 30B 1L에 위치한 포항온천은 지하 620m에서 공급되는 약알칼리성 천연광천수의 식염·유황온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 주차시설 1,400평에 약 1,200평 규모로 건설된 포항온천은 이태리 트래비 분수를 재현한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인근에 위치한 환호해맞이공원과 북부해수욕장·죽천·칠포해수욕장과 연계되는 포항의 명소이다. 식염유황온천은 다량의 미네랄과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 향상은 물론 여러 질병예방에 효능이 있으며 유황성분 함량이 4.9mg/l에 달한다.

## 2) 수목원·식물원·자연휴양림

### (1) 경상북도 수목원

죽장면 상옥리 내연산 남쪽 해발 570~780m 고지에 2001년 9월 내연산수목원으로 1차 개원을 한 경상북도 수목원은 6년간의 준비 끝에 총 3,222ha의 부지에 1,510종 179,226본의 나무와 풀이 식재되어 규모면에서는 동양 최대를 자랑한다. 포항시에서 가장 오지로서 평균고도가 500m 이상이며, 보현산(1,124m)·향로봉(930m)·천령산(776m)·수석봉(821m) 등의 높은 산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다. 주요시설로는 연못 5개소·잔디광장 2개소·급수대 1개소·주차장 2개소·전시홍보실이 있으며, 조성 목적은 경상북도 향토고유수종 및 국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연구·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친화적 생태교육 체험장 조성·동해안권 관광지·주변 식물원과 연계한 산림생태문화권 조성을 위해서이다.

## (2) 기청산 식물원

산림청 등록면적 5ha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 9ha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조성비 3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10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해변식물원 등 15개의 전시원·교육장 2개소·쉼터 2개소·체험장 1개소·식물판매장 1개소·주차장 2개소 등이 있다.

청하행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식물 해설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유치원생부터 기업체 직원연수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3) 비학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기북면 탑정리 일원에 224.86ha 크기로 2010년까지 건설 중이며, 휴양림과 삼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시민들의 여가시간과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야생화 등 생태관찰 체험지구·산림 레포츠지구·삼림욕 등산로·숙박시설·주차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 (4) 포항중명자연생태공원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생태환경 교육장으로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산림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을 보다 쉽고 가깝게 느끼고 접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자 조성하였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일원에 98ha 규모로 2006년 6월에 착공하였고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기반시설 및 진입로가 정비되어 있다. 앞으로 야생화 관찰원·암석원·소생물원 등이 조성되고 관찰원·등산로 등이 정비되면 본격적인 생태관광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도읍산 산림문화 수련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와 성곡리·신광면 냉수리와 경계를 이루는 도읍산 천곡사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연령과 신체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숲길을 이용, 숲 체험을 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포항시내에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 3) 등산 및 계곡

#### (1) 내연산군립공원과 청하계곡

송라면의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710m 내연산은 골이 깊고 뛰어난 풍광의 12개 폭포를 품고 있으며, 이 내연산 자락을 굽이굽이 감돌며 흘러내리는 골짜기가 청하계곡이다. 내연산 외에도 문수산(622m), 향로봉(930m), 삿갓봉(718m), 천령산(775m) 등 높직한 준봉들이 반달모양으로 둘러져 있어 청하계곡은 여느 심산유곡 못지않게 깊고도 그윽한 면모를 보인다.

청하계곡은 약 14km에 달하는 계곡 양안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폭포와 소(沼)가 많기도 하거니와 이곳처럼 다양한 형태의 폭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도 드물다. 이런 연유로 2002년 10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선정되었다.

100대 명산은 산림청에서 “2002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리·생태학관련 교수 및 산악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에 걸쳐 선정하였다.

등산 코스는 향로봉(930m), 천령산 우척봉(775m)에 다양한 등산코스가 있어 선택하여 등산을 할 수 있다.

#### (2) 운제산과 산여계곡

대송면 산여리에 위치한 운제산은 옛 연일현(延日縣)의 진산으로,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함께 수도하면서 원효암과 자장암을 명명하고 수도·포교할 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암자가 기암절벽에 있어 내왕이 어려우므로 구름다리로서 오가고 했다가 여불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신라 제2대 남해왕비 운제부인(雲帝夫人)의 성모단이 있어서 불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자장·원효·혜공 등 고승들이 이 산에서 수도하였다고 전해진다. 동쪽 기슭에 1,400년 고찰 오어사를 품고 있는 운제산은 해발 482m로서 형산강 이남의 최고 명산이다. 정상에는 바위 사이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높이 30m, 둘레 50m인 대왕암(大王巖)이라 불리는 전설어린 거대한 독립바위가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 (3) 비학산

비학산은 포함시 북구 신광면·기계면·기북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신광면의 진산이다. 진산이란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도읍이나 마을을 뒤에서 품어주는 산



으로, 사람으로 치면 모태와도 같은 산을 일컫는다. 알을 품고 있던 학이 넓은 신광별관 위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라 하여 비학산이라 불리워졌다.

해발 762.3m인 형제봉이 주봉이며 정상 봉우리 외에 동편 중턱에 작은산 모양의 불룩한 봉우리가 있는데 이를 무제등이라 하고, 이곳 등잔혈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고 한다. 등산코스는 4코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 (4) 죽장 가사천계곡

죽장면 입암리에서 가사령까지 15km의 가사천은 곳곳에 숲과 소가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학소대 옆 암벽은 암벽등반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예로부터 저명한 문사(文士)나 필객(筆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시대 중엽의 대학자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이 말년을 보내면서 지은 <입암삼십영(立巖三十詠)>에서 입암의 빼어난 경치들이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여헌 선생과 동시대 인물이면서 여헌을 찾아 자주 이곳을 방문했던 당대의 문장가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의 <입암(立巖)> 이하 29수의 연시조에서 입암28경(立巖二十八景)에 대한 경치와 절경이 다시금 드러난다. 입암28경의 분포는 죽장면 소재지 남쪽 세이담으로부터 입암리 일원과 동쪽 산지령에 이르기까지 입암서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걸쳐있다.

#### (5) 하옥계곡

죽장면 하옥리에 위치한 하옥(下玉)은 포항시에 속하지만 오지중의 오지로, 옥같이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러내려 여름철엔 불편한 교통편에도 불구하고 피서인파로 붐빈다. 태맥산맥의 지맥인 동대산·향로봉 계곡이 합쳐진 영덕 오십천의 발원지이며,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풍광이 수려하여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 (6) 무학사계곡

죽장면 두마리에 위치하며 포항시·영천시·청송군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면봉산(1,113m)에서 발원된 무학계곡은 현내천 상류지역으로, 15km에 이르는 하천을 따라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주변경관이 뛰어나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특히 무학사 주변과 학이 춤추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무학대의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현내리 등 마을 어귀 곳곳에는 300년이 넘는 마을 숲이 조성되어 있어 풍광이 뛰어나고 물이 맑아 여름에는 인근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여름에는 매우 번잡하다.

## 4) 공원

### (1) 호미곶 해맞이광장

호미곶의 상징성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며, 2000년 1월 1일 새천년 일출 국가행사 장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천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곳 호미곶의 일출시각은 울산 간절곶과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도 두 번째로 해를 빨리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1년간 평균 해돋이는 첫 번째이다.

새천년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주제로 조성된 이곳 해맞이광장은 새천년 한민족해맞이축전 개최장소로서 46,017㎡의 부지에 기념조형물 상생의 손·성화대·영원의 불씨함·연오랑 세오녀상·채화기(천년의 눈동자) 등이 건립되어 있다. 그 외 풍력발전기·공연장·한국 관광명품관·주차장·관리소 등이 조성되어 있다. 새천년을 축하하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 6월 제작에 착수하여 6개월만인 그해 12월에 완공된 상생의 손은 사람의 양 손을 청동소재로 바다와 육지에 각각 설치하여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며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고 있다.

### (2) 환호해맞이공원

환호동 산 56-1에 위치한 환호해맞이공원은 156,779㎡의 광활한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영일만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지역 최대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해안절벽과 수목들에 현대적 아름다움과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가미한 공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등산로가 구비되어 있어 포항시민 및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망대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대폭포·잔디광장·프로그램분수·바람개비동산·팔각정자·파고라·동물원 등이 있다.

현재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되어 휴식과 함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휴식처이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지상 2층·별관 2층의 구조물로 2009년 12월 개관되었고, 순수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충족 및 공원기능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형산강 둔치체육공원·해도 근린공원

형산강 공원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로 달집 태우기, 사월 초파일 연등축제, 형산강사랑 포항시민 걷기대회, 국제불빛축제 등이 개최된다.

특히 둔치체육공원에는 포항시에서 2008년 조성한 포항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남녀노소·가족 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9홀

405m 거리로 되어 있고, 포항시 체육지원과에서 주관하며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기방식 지도 및 장비를 지원한다.

둔치체육공원과 연결된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해도 근린공원에서는, 포항항 개항 일인 1962년 6월 12일을 기념하는 포항시민의 날에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비상(飛翔)’이라는 36.5m의 조형물 개막식이 있었다.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모토로 남구 해도 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13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배경인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오대양 육대주로 나아가는 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산업·문화관광·첨단 과학도시로의 미래를 향한 글로벌 포항의 염원을 담았고,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사방기념공원

흥해읍 오도리에 위치한 사방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사방기념공원으로써 한국 사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개관하였다.

이 지역은 바다에서 웅기한 지질이어서 염분성분이 많아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산이었으나, 험벗은 산등성이를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3년부터 5년간 당시 영일군 주민과 공무원 등 연인원 360만명이 참여해 비탈진 모래산 4,538ha에 토목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다.

187,000여㎡ 크기의 사방기념공원에는 단기간에 녹화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 성공지를 보여주는 외부공원과 사방사업 기술변천과 각종자료를 모아 전시한 실내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사방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종류를 기념관 뒤편 야산에 실제 시공하여 산림복구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황폐지 복구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구 기술인의 형상을 본 떠 현지에 전시하는 정교한 전시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마치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3개의 전시실과 다목적 영상실이 있는 사방전시기념관, 야외사방시설(부조, 환조, 대오라마, 산지사방 등), 문화유적 전시 시설(삼국시대 석실묘, 석곽묘, 유물 등), 한반도 형상의 연못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중국, 미얀마, 몽골, 튀니지 정부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조림(造林)을 위한 국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방기념공원으로써의 역사성 보존과 국내·외 사방기술 교육장 활용은 물론 동해안의 천혜절경과 연계한 국민관광 명소화로 관광객 유치 및 포항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500번 버스가 자주 왕래하여 방문이 용이하다.

## 5) 내수면 낚시

1970년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등산과 함께 현대인이 즐기는 레저활동으로 정착한 내수면 낚시터로는 용연지·냉수지·고현지·안심지·기동지·은천지·오어지 등의 저수지와 형산강변이 대표적이다.

신광면 호리에 위치한 용연지(호리못)는 평균수심 1~4m의 계곡형으로 저수지 주어종은 붕어·잉어·메기·장어 등이다. 1960년 준공한 못으로 포항지역에서 최고 조황이 좋은 낚시터로 알려져 있고 씨알이 다양하며 포획 수에서도 으뜸이다. 여름철 밤 낚시터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많이 찾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한 조과를 보이며 봄철 상류권 포인트에서 월척이 잘나온다. 수량이 풍부하여 갈수기에도 바닥을 한 번도 들어내지 않았다.

죽성 소류지의 주 어종은 붕어로 이곳은 축조한지 15년이 지난 소류지이나 아직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 낚시마니아 단골 월척터이다. 규모는 작지만 월척이 자주 잡히는 어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수심이 전반적으로 깊어 수초는 상류에만 약간 있고 물 속 수몰나무가 많다. 포인트는 주로 제방 왼쪽의 중·상류쪽으로 씨알은 고른 편이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에는 신광유료낚시터가 있는데, 야외낚시터 수면적은 1,000평 하우스낚시터는 200평으로 평균수심 2m이다. 겨울철에는 하우스만 운영되며 주어종은 붕어·향어·잉어 등이다. 수질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좌석수는 실내 30석 야외 70석이다.

## 2. 해양관광

해양관광 참여인구를 유형별로 보면 여름이 61%를 차지하는 극심한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고, 형태별로는 해수욕(74.7%)·바다낚시(7.1%)·해양레저스포츠(2.6%) 등으로 해수욕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계절성 집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항시의 경우 2009년 여름철 동안 열차를 이용하여 포항역에 하차한 승객에게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월포·칠포·구룡포 해수욕장까지 모시는 ‘녹색피서열차’를 운행하였다. 또 고압적인 해양관광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남구 구룡포에서 북구 화진까지 162.07km 해안선을 해양관광지로 개발, 7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살려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기대된다.

구룡포 해수욕장은 민박촌으로 정비하고, 오징어잡이 등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며 해안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테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구해수욕장은 해변대 병영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서원·선돌·일월지 등 주변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송도해수욕장은 형산강과 연계한 산책로·자전거 도로·근린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도심휴양지로 개발하고, 북부해수욕장은 마리나 리조트·특급관광호텔·자연테마 거리를 조성하면서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해 사계절 해양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칠포해수욕장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을 조성하고, 민속박물관·칠포암각화군·사방기념공원 등과 연계해 해양경관 탐방의 장으로 개발한다.

월포 해수욕장은 용두산과 연계하여 산책로·산림욕장·방과제·갯바위 낚시터·헬스클리닉·해수풀장 유치로 웰빙형 휴양지로 개발하고, 화진해수욕장은 MTB·겨울 등반·내연산과 연계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 1) 해안휴식 관광

### (1) 해수욕장

포항시 해수욕장은 화진·월포·칠포·북부·송도·도구·구룡포 등 7개소로 연간 관광객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포항시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자료는 최근 4년간 각 해수욕장 피서객 현황이며, 도심권에 위치한 도구해수욕장의 경우 해마다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수욕장 일대 하수구 종말처리장 증설 등 정화노력으로 2009년 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 6개 해수욕장에 대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 통보를 받았다.

피서객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화진해수욕장	223,530	238,000	261,020	266,420
월포해수욕장	924,400	1,035,800	1,118,070	1,659,060
칠포해수욕장	633,400	665,400	707,000	792,600
북부해수욕장	189,500	298,250	387,400	458,170
송도해수욕장	29,910	4,080	-	-
도구해수욕장	32,720	28,650	10,500	9,480
구룡포해수욕장	105,000	121,200	107,300	107,780
계	2,138,460	2,391,380	2,591,290	3,293,510

## ① 화진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은 포항시에서 북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국도 7호선 바로 옆에 위치하며 백사장은 길이 750m·폭 100m로 56,000㎡의 면적에 하루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물이 맑고 주위경관이 뛰어나며 바로 옆에 위치한 화진휴게소 외에는 상가가 없어 조용하면서도 안락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해당화 군락은 2004년 12월 6일 포항시 문화재로 선정되었으나 사유지에 서식하는데다 해당화 뿌리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하게 훼손되었다. 해당화가 보호식물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바닷가 모래밭에 자생하는 나무여서 지금까지 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지만, 화진해수욕장 개발계획에 해당화 군락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인근에 골프장이 있어 해양관광과 연계된 관광·레저가 용이하며, 내연산군립공원·연산온천·국도해양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화진마을 등이 가깝다. 시내에서 500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포항에서 영덕·울진방면 시외버스가 15분마다 있어 방문하기에도 편리하다.

## ② 월포해수욕장

청하면 월포리 92-23에 위치하며, 수심이 얕고 백사장은 길이 1.1km·폭 70m·면적 107,786㎡에 하루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포항시 해수욕장 중 가장 방문객이 많으며 1.1km 백사장에 연접한 해안도로를 따라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아 사전준비 없이도 해수욕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월포해수욕장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하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착공할 계획이다. 피서철에는 월포행 버스가 1일 11회 운행되며, 영덕·울진방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 ③ 칠포해수욕장

MBC 드라마 ‘네멋대로 해라’와 ‘2009 외인구단’이 촬영돼 전국적으로 알려진 칠포해수욕장은 흥해읍 칠포리 112번지에 위치하며 포항에서 13km 거리에 있다. 왕모래가 많은 백사장은 길이 4km, 폭 70m, 면적 324,443㎡로 하루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 규모이다. 현재 바다시청이 있는 연면적 260㎡의 전면 유리 2층 건물에 각종 레저스포츠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으며, 윈드서핑·파도타기 등에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어 칠포해수욕장을 전국적인 윈드서핑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시민들에게는 볼거리 및 해양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동호인들의 방문기회 창출로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피서철 성수기에는 ‘칠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리며 방문객들에게 한 여름밤 재즈의 선율에 실린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대형 주차장과 파인비치호텔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오락과 휴양을 위한 유원지가 1,474,235㎡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조성이 완료되어 방갈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인근 곤륜산 일대에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 칠포리 암각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9호)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곤륜산 정상은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으로 각광받고 있어 연계관광으로도 멋진 장소이다.

#### ④ 북부해수욕장

포항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해양공간인 북부해수욕장은 북구 항구동과 두호동을 걸쳐있으며 백사장 길이 1.7km, 폭40~70m, 면적 37,207㎡로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송도해수욕장이 퇴조하면서 1976년 7월 개장되었고 근년에는 12월에 과메기축제가 매년 개최된다.

이곳 바다시청 앞 해상 250m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설치된 해상 부양식 고사분사가 있다. 3개의 수중모터가 작동하면서 600마력의 힘으로 바닷물이 최대 120m까지 치솟는데, 낮에는 시원스런 물줄기의 웅장함과 함께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펼쳐지는 무지개가 장관을 연출하고, 밤에는 POSCO의 야경을 배경으로 분수대 주변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의해 물보라가 6가지 화려한 색채마술을 펼쳐 지역명물로 자리 잡았다. 분수대는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물줄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기상악화 시 시설물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도 있다. 포항시 테라노바 1호 작품인 바다시청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상징하며,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 건축면적 501㎡ 규모로 5억원이 투입되었다.

POSCO와 영일만이 한눈에 조망되며 백사장의 모래결 또한 고와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무료야영장·무료주차장·무료 해양레저 체험교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도심권에 위치하여 편의 및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횃집이 밀집되어 먹거리의 즐거움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 ⑤ 송도해수욕장

1911년 일본인 대지주 오우치로(大内治郎)이 송도백사장 불모지 53여 정보의 국유지를 대여 받아 조림사업을 전개하였고, 십 수 년이 지나 송림이 울창해져 1929년 어업 보안림으로 지정되었다.

포항읍이 승격된 1931년 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하였으며 북한의 원산해수욕장과 함께 남한의 송도해수욕장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1968년 이후 철강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백사장의 유실로 지금은 백사장 길이 1.7km, 폭 30m, 총면적 11만평으로 줄었다. 1977년 해수욕장 일대가 유원지시설로 결정되고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는 유원지시설로 변경·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크게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권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나 주거환경 밀집 등 수질오염으로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2007년부터 백사장 유실과 도로 개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해 개장을 못하고 있고 현재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포함시는 백사장 복원을 위해 75만톤의 모래를 외부에서 보충하기로 하였고,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길이 900m 수중보(잠제) 3개를 설치하여 백사장 폭 100m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송도 및 월포해수욕장 해안침식에 대해 국고보조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지원되고, 2010년부터 모래유실 등 해안정비가 추진되면 송도해수욕장 또한 그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바람을 실어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경북일보가 주최하는 ‘송도해변축제’가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꿈같은 여름밤을 선사하고 있다. 현재는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아 폐장되어 있다.

#### ⑥ 도구해수욕장

일명 ‘날치기 조개’로 불리는 개량조개 산출로 방문객들이 많았던 도구해수욕장은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위치하며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서린 곳으로, 백사장 길이 800m, 폭 50m, 총면적 1만2천평으로 하루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임에도 갈수록 이용객이 급감하여 2009년 남구청에서는 몽골텐트 10동, 비치파라솔 50개를 무료 대여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다. 주위에 상가나 위락시설 등이 전혀 없어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피해 조용하면서도 안락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근 동해중학교 시설을 이용한 각급학교의 수련장으로, 일반인들의 해병대캠프 훈련장으로도 사용된다. 포함시의 해양문화관광도시 청사진에도 도구해수욕장은 해병대 병영체험 등 문화체험의 장으로 특화되어 있다. 물론 해병대 병영체험 특화도 의미 있지만 개량조개가 많이 서식하던 해수욕장 환경을 고려하여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의 취향을 반영한 치패살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⑦ 구룡포해수욕장

포항시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구룡포읍 구룡포7리에 위치하며 반달형의 백사장은 길이 400m, 폭 50m, 총면적 6천평 규모로 하루 1만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장



기근무 중인 안전요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안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류계를 장기간 부설하여 이안류 발생빈도·유속·해류폭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매년 구룡포 청년회의소가 ‘포항 구룡포 해변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룡포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맨손으로 오징어잡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으로 구룡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먹는 기쁨이 어우러진 맛깔스런 축제의 장을 선사하고 있다.

이곳의 장점으로는 등대박물관·호미곶 해맞이광장·성동메뚜기 마을 등과 연계관광이 가능한 것이며, 구룡포읍에 위치한 위관장에서 경매를 관찰하거나 해안을 따라 즐비한 식당가에서 먹거리 관광 또한 멋진 추억이 될 것이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시내에서 구룡포행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 (2) 조간대 수렵

큰 폭풍이 지나고 나면 해안 곳곳에 미역을 비롯한 각종 해조류가 해변에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식용가능한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조 때는 바위에 붙은 고동류를 채취하고, 여름철이면 북부해수욕장·도구해수욕장 수심 1m 부근에서 맨발을 이용한 조개수렵을 볼 수 있다. 조간대 수렵은 물때를 맞춰 일정 구역의 조간대를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 대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해안에서 조간대와 갯벌을 활용해 훌륭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포항에서도 구룡포 지역에 민들조개 10만미를 방류한 바 있으나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방류한 것이다.

포항시가 내세우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개잡이 체험 등 간단하고 즐거운 체험관광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창출이 필요하다.

## (3) 바다낚시

긴 해안선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포항은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울려 연중무휴 바다낚시터로 인기가 높다.

포항에는 현재 80여개의 낚시용품점이 성업 중이며, 지역 내 유명 바다낚시터는 다음 표와 같다.

## 바다낚시터 현황

명 칭	위 치	대상 어종	낚시 방법
청진리 낚시터	청하면 청진리	망상어, 학꽂치, 고래치	갯바위 낚시
이거리 낚시터	청하면 이거리	가자미, 열기, 학꽂치	갯바위 낚시
지경리 낚시터	송라면 지경리	망상어, 학꽂치, 고등어	갯바위 낚시
월포 낚시터	청하면 월포리	꽂치, 놀래기	방파제 낚시
포항앞바낚시터	포항 앞바다	감성돔, 쥐노래미, 농어, 고등어	방파제 낚시
삼정 낚시터	구룡포읍 삼정리	망상어, 놀래기, 우럭	릴 낚시
대동배 낚시터	대보면 대동배리	망상어, 복어, 가자미, 열기	배낚시, 릴낚시
구룡포방파낚시터	구룡포항 방파제	벵에돔, 감성돔, 우럭, 갈따구	방파제 낚시
구룡포항낚시터	구룡포읍 구룡포항	벵에돔, 망상어, 우럭, 고등어	배 낚시
양포방파제낚시터	장기면 양포리	감성돔, 벵에돔, 볼락, 뱀장어	방파제 낚시
신창리 낚시터	장기면 신창리	가자미, 감성돔	던질 낚시

영일만 신항방파제는 2009년 현재 포항지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 수년 전부터 돌돔·참돔·자리돔·강담돔·농어 등 남해·제주도 등지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이 포항 앞바다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다. 다이버들도 참소라 등 난류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의 어획을 증언하고 있어 포항은 난·한류권의 다양한 어종 낚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바다낚시는 장소에 따라 갯바위낚시·바다양어장 낚시·선상낚시(유어낚시)로 구분되는데, 유어낚시는 적극적인 해양레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어낚시 인구는 2000년 66.7만 명에서 2006년 230.5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9년 포항시는 영일만의 아름다운 해안을 둘러보는 ‘포항사랑 어선투어’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어선(6~8톤) 3척을 이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며, 영일만항을 출발하여 어로작업현장을 견학하고 POSCO 주변을 둘러보는 2시간 정도의 관광코스로 선상낚시도 겸할 수 있다. 어선투어의 반응이 좋으면 구룡포항과 양포항에서 출발하는 해양관광코스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4) 해넘이

서쪽으로 지는 해넘이가 일품인 호미곶 땅끝 구만리 독수리바위에 주변의 풍광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2008년 12월 착수하여 2009년 완공하였다. 이 지역은 풍파가 심하면 청어가 밀려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여 까꾸리(갈고리의 방언)로 끝

었다는 의미에서 까구리 계라고도 불리며, 독수리바위는 오랜세월 풍화작용으로 바위 모양이 독수리 부리를 닮았다 하여 주민들이 붙인 이름이다. 대흥산 너머에서 비추는 낙조절경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켜 언론사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바로 앞에 위치한 교석초(수중암초 이름)에는 조그만 등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주위는 물살이 세고 파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해상안전을 유인하는 수중등대를 세우게 된 계기는 1907년 9월 9일 구만리 앞에서 좌초한 일본 동경수산강습소 실습선 139톤급 ‘쾌응환호’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전망테크 왼편에 1926년 9월 9일에 세웠던 조난기 념비가 자리하고 있어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2) 해양테저스포츠 관광

포항시는 2009년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꿈을 실현하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로 도약하고자 포항해양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매월 1회 40명을 선착순 모집하였으며 종목은 조정·카누·윈드서핑·수영 등이었다. 참가비는 1회당 성인 2만원 청소년·노인은 1만원으로, 토·일요일 8회 수강에 성인 수강료는 16만원이었고 청소년·노인은 8만원이어서 큰 부담 없이 해양스포츠에 빠져드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 (1) 윈드서핑

2008년부터 하계 휴가철에 무료요트교실이 북부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주로 윈드서핑을 강습하는데 윈드서핑은 서프보드(surfboard)에 돛을 달고 파도를 타는 해양스포츠이다. 처음에 윈드서핑은 하나의 상품명에 불과 했으나 본래 명칭인 ‘보드세일링’을 대신할 정도로 일반화된 이름이 되었다.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상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윈드서핑은 지난 76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서핑기구는 윈드서퍼·미스터럴·윈드글라이더가 있는데 모두 상표명이다. 윈드서핑은 장비가격과 활동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크게 보드·세일(돛)·연결장비로 나뉜다. 보드는 길이에 따라 나누는데, 길이가 긴 보드로는 레이싱 보드·올라운드 보드·2인승 보드 등이 있고, 이 중 올라운드 보드가 입문자와 일반 동호인을 위한 것이다. 길이가 짧은 보드로는 슬라롬 보드·웨이브 보드·스피드 보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경기보다는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보드이다. 어느 수상스포츠에 못지않게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밸런스·지구력·허리힘은 물론 팔·다리·어깨의 힘을 필요로 한다.

## (2) 스쿠버쿠버

50년의 역사를 지닌 스쿠버 다이빙은 1968년경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군과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보급·전파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긴 해안선과 수려한 경관을 갖춘 포항은 대구·울산 등 인근 대도시의 방문객들이 주말마다 즐기는 포인트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영일만내 대동배 쪽에는 일명 ‘고래섬’이라 불리는 해저암초가, 용한 앞바다에는 ‘마잠’이라 불리는 해저암초가 있어 잠수 포인트로 이용된다.

구룡포 이남지역에서는 장기곶·대보등대·삼정·강사·양포 등 해안 곳곳이 포인트이고, 죽천 이북지역에서도 용한·죽천·오도·청진 등 해안 곳곳이 포인트여서 굳이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주요 포인트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필요장비는 공기탱크·호흡기 및 게이지·부력조절기·각종 계기 등 10여 가지로 대략 150만원~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16개 장비 대여업소가 해안선을 따라 성업 중에 있으며, 원잠수다이빙스쿨은 실내 잠수교육 전용풀장 등 다이빙 실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잠수전문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 (3) 제트스키

짧은 역사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레저스포츠이며 오토바이 제작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 1973년 개발·보급되었다. 제트펌프의 분출로 추진력을 얻어 수면을 활주하는 수상오토바이 타입의 소형 모터보트로 수상스키·윈드서핑과 함께 3대 수상레저스포츠의 하나로 손꼽힌다.

제트스키는 장비운반이 쉽고 조작방법이 용이하여 초보자라도 간단한 설명을 듣고 5~10분 정도 교습을 받으면 바로 즐길 수 있다.

뛰어난 안전설계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명장비만 착용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체험할 수 있으며, 물을 내뿜는 제트추진방식에 의해 달리기 때문에 부력만 유지한다면 30cm 정도의 얕은 물에서도 가능하다.

모터보트와 달리 몸체가 작아서 다양한 테크닉 구사가 가능하며 시속 80~90km의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상레포츠이다. 레이싱 기종인 1인용 제트스키가 제트스키 표준으로 많은 애호를 받고 있으며 주로 서서 탄다.

포항에서는 기온이 내려간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동호인들이 북부·칠포해수욕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여름철에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체험할 수 있지만 대여가격으로 아직은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다.

#### (4) 바나나보트

초고속으로 달리는 모터보트에 견인줄로 연결된 바나나 모양의 고무보트를 타고 속도감과 아기자기한 재미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간단한 해양레저스포츠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4~5인이 한 번에 탑승한다. 포항에서는 북부해수욕장·칠포해수욕장 등 모든 해수욕장에서 개장과 함께 즐길 수 있다.

### 3) 어촌·어항 복합공간

어촌·어항복합공간은 국토해양부가 배후어촌과 연계되는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어촌과 어항의 특색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원도·강릉·울산 정자·제자 모슬포 등 전국 7개소 국가어항이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면 양포항은 두 번째로 완공되어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문어·아귀 생산지로 유명한 양포항은 전형적인 U자형 만으로 병어돔·감성돔·매가리 등 바다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나 인근 대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 해상공연장, 목재 테크를 재료로 만들어진 해변산책로, 북방과 제로부터 700m 바닷길을 따라 설치된 건강지압로·탄성고무포장길 산책로, 요트계류장 등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해변의 특색을 살린 배 모양의 화장실과 전망대, 문어모양의 급수대와 상징조형물, 반딧불 2마리가 붙어있는 형상의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의 실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양포항은 생태관광을 지향하는 포항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기 쉬운 단점이 있어, 하루 빨리 적극적인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 4) 해양관광 비전

#### (1) 해양체험관

포항시가 해양관광·레포츠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 체험형 해양학습관이다. 포항시 체험형 해양학습관은 북구 환호동 해안 일원에 인공해안형태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부지 2만㎡에 건평 1만㎡·지상 3층 규모로 해양학습관·해양 전시관·해양생태 체험관이 들어선다. 또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일원에도 500억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 6천㎡, 건평 1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해양수족관을 건립한다. 이로써 포항은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 (2) 크루즈노선 개발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2008년 4월 30일 포항시가 TPO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09년에는 학생여행단 교환사업 및 회원도시 순회 크루즈노선 개발에 들어갔으며, 2010년부터 시범운행을 한 다음 2012년부터 정기운항 할 계획이다.

### (3) 동빈내항 복원

포항시는 동빈내항과 형산강간의 수로를 개설하여 동빈내항 정체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회복함과 아울러 주변도심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 남구, 송도, 해도, 죽도동 일원에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로건설 1.3km, 수변유원지 96,120㎡을 조성하는 대규모 친환경사업으로 복원하천 주변에 수상카페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의 민자유치와 포스코의 지원금 시내투자로 행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동빈부두 기존 시설을 철거, 가로변 녹지, 테마거리 조성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4) 포항 구항 해양공원

포항시는 남구 송도동 일원에 위치한 포항 구항을 동빈내항 복원과 연계하여 16,400㎡의 해양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무역항의 기능상실에 따른 항만기능을 친수 시설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친수공간을 주목한 것은 부산 민락동의 면적 1만여평의 워터프론트 성공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최첨단 비즈니스타운 및 호텔·공원·체육시설 등 신도시 개념의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구축하면서,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포항의 랜드마크인 타워브릿지(인도교) 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타워브릿지에는 해양전망대, 해양박물관, 해양수족관 등을 설치하는 관광기능을 도입하여 복합타워빌딩으로 뮤지컬 마당, 카페마당을 함께 개설,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제3절 인문적 관광자원

### 1. 문화 관광 자원

#### 1) 포항의 문화관광 자원

문화관광 자원

구 분	명 칭
박 물 관	영일민속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덕동문화마을
기 념 관	대전3·1의거기념관,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테 마 마 을	덕동문화마을, 가사천지구 농촌전통테마마을
공 원	환호해맞이공원
축 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 축전(12.31~익년 1.1 호미곶광장), 포항해병인축제(7~8월), 포항국제불빛축제(매년 7월), 영일만축제(홀수년도 10월), 포항과메기축제(12월말~익년 1월초), 구룡포특산품축제(매년 12월), 포항해변축제(7~8월), 포항바다연극제(7~8월, 환호해맞이공원)

#### (1) 내연산 보경사

보경사는 포항시의 최대 사찰로 기암괴석과 폭포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내연산 계곡을 낀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송라면 중산리에 있는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3)에 창건하였으며 현존건물은 숙종 3년(1677)에 중건된 것이다.

현존하는 전각으로는 적광전, 대웅전, 영산전, 팔상전, 명부전, 원진각, 산령각 등의 중심건물과 원진국사비각, 설산당비각(雪山堂碑閣) 등이 있다. 산내 암자로는 청련암, 서운암, 문수암, 보현암 등이 있으며, 그중 서운암에는 조선시대의 승려 사인비구가 만든 포항보경사서운암동종(보물 제11-1호)이 보관되어 있다.

동산문화재로 등록 제3382호인 조선 숙종의 친필 각판(刻板) 및 지명법사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의 진영(眞影), 부도로는 동봉(東峰), 청심당(淸心堂), 심진당(心眞堂)의 승탑들이 있다.

## (2) 운제산 오어사

포항시 오천읍 향사리 운제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조에 창건되었으며 영조 17년인 1741에 중수되었다. 오어사를 중심으로 자장암, 원효암이 있으며 운제산 북쪽기슭에는 흥계폭포와 동쪽에는 저수지가 있어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 (3) 법광사

비학산 입구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에 위치하며 신라 26대 진평왕때 원효대사와 의상법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39호로 법광사의 현판은 진평왕의 친필로 휘호하였다.

법광사는 약 5천여평 규모의 경내에 대웅전·금당2층 향로전 등 525칸의 대건물로 추정되나, 조선 철종 말년인 1863년 촌부의 방화로 전소·폐사되었다.

현재의 법광사는 법광사지 위에 세워진 것으로 옛 절터는 경북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 (4) 천곡사

흥해읍 학전리에 위치한 천곡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원인모를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의 천곡사가 위치한 천곡령을 찾아가 약수로 며칠간 목욕하였다니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왔던 이유로 창건되었다. 병을 치유한 것에 감동한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에게 명하여 천곡령에 사찰을 짓게하고 천곡사라 명명하였다 한다.

그때의 약수가 지금의 경내 우물로 석정 혹은 소천이라 부르는 샘물인데, 정월 대보름이면 물이 용솨음치고 가뭄이 극심해도 마르는 법이 없다고 한다.

우물물은 또한 자정력을 보이는데 날씨가 차가워지면 흐려지다가 따뜻해지면 2.2m 우물 밑바닥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선명히 보일만큼 맑아진다고 한다.

지관들에 따르면 이 물은 음과 양을 겸비한 음양수라고 한다. 천곡사 계곡은 2001년 멸종위기 식물 제99호인 고란초가 집단으로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 (5) 임허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위치한 임허사는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창건되었다고는 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1910년대에 지금의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비교적 단출한 사찰로 대웅보전과 산령각·요사채 등이 있고, 도심 속 사찰로서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다.



## (6) 고석사

장기면 방산리에 위치한 고석사는 상서로운 빛을 발하는 바위에 부처님을 새기면서 창건된 사찰이다.

창건설화에 의하면 신라 638년(선덕여왕 7년) 어느 날 경주에 있는 궁궐에 동쪽으로부터 세 줄기의 서광이 연 3일간 계속 되었다. 이에 선덕여왕의 명으로 해능국사가 서광이 발하는 곳을 찾으니 한 바위에서 서기가 발하는지라 그 바위에 부처님을 새기고 절을 지었다.

그리고 오래된 바위에서 서광이 발하였다 하여 사찰명을 고석사(古石寺)라 칭하고, 뒷산 기암괴석이 동해를 바라보며 솟아있어 망해산(望海山)이라고 불렀다 한다.

## (7) 해봉사

청림동에 위치한 해봉사는 신라 636년(선덕여왕 5년)에 왕명으로 창건되었고 당시는 군마를 기르는 곳으로 명월암으로 불리웠다. 그 후 조선시대 명종때 상선대사가 중창하였으나 1973년 화재로 소실되고 1985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명월산 자락에 자리잡은 해봉사는 대한불교법화종의 전통사찰로, 해안마을의 특성 탓인지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물게 용왕각이 있다. 시멘트 건물이지만 용왕각은 사찰 주변의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기도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 2) 체험관광 자원

### (1) 성동 메뚜기마을

국내·외적인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이곳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 3리에 위치하며, 여름밤에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가을 들판에는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순수 농촌마을로 어른들은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어린이들은 신기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연중 분재체험·전통떡·손두부 만들기·사물놀이·서당체험·도자기체험·천연염색체험·뇌성산 등정이 가능하며, 봄에는 자연생태체험·쑥떡만들기·양파캐기·감자심기·모내기 등을, 여름에는 오디따기·은어 미꾸라지잡기·반딧불체험 등을, 가을에는 도토리묵 만들기·메뚜기잡이·고구마캐기·고추따기, 알밤줍기 등을, 겨울에는 신년해맞이·정월대보름 쥐불놀이·팽이치기·연만들기·짚 공예·메주 된장 김장 담그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주민은 42가구 85명 정도이고 민박참여 농가는 25호이다. 브랜드농산물 주력상품은 흑미·현미잡쌀·단호박 등이다.

## (2) 가사천지구 삼굿마을

죽장면 입암리 솔안마을에서 매현리 미재·중리·돌다리·딱발골까지 이어지는, 금호강 상류 가사천지역 6km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전통 체험관광이다.

이들 마을은 맑고 풍부한 물과 수려한 계곡암반·아름다운 산세·각종 토산물이 풍부하여 후덕한 산골인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예로부터 길쌈을 많이 하던 마을이라 삼베를 짜는 풍속 ‘삼굿’을 따서 삼굿마을이라 부른다. 삼굿(3 Good!)은 3가지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잘 보존된 전통, 고향의 정취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로쇠수액 채취·6.25피난동굴체험 등의 생태환경체험, 떡매치기·맷돌두부 만들기 등의 농촌생활문화체험, 모종심기·사과열매숙기·콩타작·감자캐기·토마토파기 등의 농사체험, 지게지기·짚풀민예품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는 느티공원·식수대·간이화장실·간이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3) 덕동문화마을

기북면에 위치한 덕동문화마을은 조선 중기의 양반가옥과 관아건물, 서민들의 일상 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독특한 문화를 높이 평가받아 1992년에는 문화부지정 문화마을로, 2001년에는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받았다.

2006년 산림청·생명의 숲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 기북면 오덕리 덕동마을 숲이 선정되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인정받았다.

덕동마을 숲에는 200년생 은행나무와 160년생 향나무 등 고목들이 생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마을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마을 저습지에 도시소생물 서식공간(비오톱, biotop)을 조성하였다.

## (4)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 시티(Slow City)

포항시에서 서북방향으로 43km, 죽장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20km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오지로 남쪽은 영덕군 달산면, 서쪽은 가사리와 경계를 이룬다. 전체면적의 95%가 임야이고 전 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여름피서지 및 오지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고랭지 기후라 밤낮의 일교차가 심해 각종 농산물의 병충해가 적고 과일의 당도가 높아 유기농업의 적지로 알려져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머무르

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농업관광마을 조성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 및 휴양처 제공을 지역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국 으뜸 친환경농업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죽장면 상옥 1·2리에 242ha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95억원에 2010년까지 계속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약속하기 위해 ‘참느리’라는 고유상표를 개발하였고, 현재 남이제약의 컨설팅 아래 약초생태학습장 조성이 한창이다.

### (5) 초롱구비마을

장기면 산서리(서화, 월산, 새터)에 2006년도 국비지원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되었으며, ‘초롱구비’는 산과 내가 굽이굽이 펼쳐지는 자연경관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토속음식의 건강함이 있는 마을 이미지를 의미한다.

산서리 중앙에 있는 서화(瑞花)는 매화나무에 얽힌 전설에서 ‘상서로운 꽃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예쁜 선녀와 나뭇꾼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고려 예조판서를 지낸 경주 수은 김충한(金沖漢)과 그의 7대손 서계 김응장(金應章)을 추모하는 서산서원과, 김시상(金時相)의 효자각이 있다.

월산(月山)은 초승달이 산봉우리를 지날 때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마을을 둘러싼 산을 함월산이라 하고, 그 골짜기를 음월곡이라 한다. 새터는 최국원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이사와서 새로 터전을 마련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입향조를 기리는 구산재(龜山齋)와 최학진(崔鶴振)의 효자각이 있다.

대나무 숲과 맥반석을 이용한 숲부작 체험프로그램이 있어 마을 주변 또는 야생화단지 등에서 채취한 야생화를 이용해 자신만의 숲부작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봄에는 산채 채취, 여름에는 산딸기 채취, 가을에는 흑미·고추 채취를, 겨울에는 역사탐방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마을 주변에 다량으로 산재한 맥반석 산재를 활용한 건강프로그램이 있다.

## 2. 산업 관광자원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도약하였다. 1968년 공사를 착공하여 1973년 연간 조강 103만톤 규모의 1차를 준공하였다.

그 후 포스코는 1992년 12월 광양 4기를 준공하여 조강생산량 23,428천톤 규모를 갖춘 세계 5위의 철강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포스코의 총 자산은 2008년 말 현재 37조원이며 민영화 전인 1999년 말의 17조 2,275억에 대비하면 약 2배 이상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포스코는 지역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대학원까지의 교육시설을 갖추어 포철 가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철강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과학기술원(RIST)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를 설립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 포스코는 문화예술과 체육에 관심을 두고 효자음악당을 건립하여 종업원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발레,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스틸러스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지역민과 종업원에 대한 단결력과 사기진작을 꾀하고 있다.

후생복지시설로는 90만평 부지를 조성해서 직원의 88%가 자기주택을 보유하도록해 국내 어느 기업보다 선진화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는 산업관광자원으로 매년 지역주민이나 외지인,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신청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산업 관광화에 관심을 가져 볼만한 자원이다.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기업문화·비전을 담은 포스코역사관(POSCO Museum)은 2003년 7월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건립되었다. 3,000여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1,100평 전시면적 600평의 지상 3층 규모이다.

창업 전사·창업기·포항건설기·광양건설기·대역사 완공 이후·테마존·창의관·청암관·기술관·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인 삼화고로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다. 기업 역사관이나 박물관이 선진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개별기업의 역사관이 흔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역사관은 마스터플랜 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철강 불모지에서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은 포스코인들이 온갖 역경과 싸워 이룩한 결과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포스코의 역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

### 3. 사회교육 관광자원

#### 1) POSTECH 및 RIST PT 견학

포항지역에는 최첨단 교육기재 및 연구시설을 갖춘 포항공대가 있다. 포항은 포항공대 중심으로 한 포항방사광가속기, 정보통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이 있어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의 가동으로 신소재 연구, 정밀기계 및 부품실험 등 첨단산업 기

지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어 교육관광코스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과 학기술연구원(RIST)은 세계적인 최첨단 과학기술 정수가 집결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어 과학기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 (1)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효자동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옆에 위치한 포항지능로봇연구소는 2007년 11월 국내 첫 지능로봇분야 독립연구소로 개소하였으며, 가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서비스로봇·휴머노이드로봇·해양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해저로봇·진단검사용 바이오로봇·의료서비스로봇·수중청소로봇·견마로봇·인간형 팔(Arm) 및 손(Hand)·자동화기능기반 부품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 지능로봇경진대회·로봇 그랜드챌린지 대회 등을 주관하며, 로보라이프 뮤지엄(RoboLife Museum) 개관을 통해 로봇 문화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로보라이프 뮤지엄은 2008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1층에 위치한 로봇 체험전시관으로, 지능로봇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편리한 주거생활과 미래의 로봇환경을 제시하며, 현재와 미래의 로봇을 만나고 로봇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의 체험을 통해 앞으로 출현할 로봇세대를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공간이다.

산업자원부·경상북도·포항시의 지원으로 건립된 로봇 체험전시관은 국내 상용로봇의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로봇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도입하여 눈길을 끈다. 뮤지엄은 지능로봇 흥미관·체험관·탐험관 등 로봇관련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한 3개 전시관과 지능로봇교육실·로봇카페·화상강의실을 갖추고 있다.

로보라이프 뮤지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연휴·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한다. 관람 예상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관람을 위해서는 로보라이프 뮤지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 (2)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효자동에 있는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하여, 651,048㎡부지에 15개 건물동 건축연면적 41,904㎡의 규모로 1,500억원의 재원과 7년간의 노력으로 1994년 12월 7일 완공되었다.

방사광가속기란 광속(光速)과 거의 같은 속도로 가속된 전자빔이 진로를 바꿀 때 그 커브의 접선(接線) 방향으로 좁은 퍼짐을 가지고 방출되는 매우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이 가속기의 국제적 명칭은 포항방사광가속기(Pohang Light Source, PLS)이며 진공자외선·X선을 망라하는 넓은 파장영역에서 원하는 파장의 빛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각종 실험에 이용할 수 있다.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에너지가 25억 전자볼트의 최신·최첨단 제3세대형 가속기로서, 주요설비로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길이 165m의 선형가속기와 가속된 전자를 초진공 통로에 저장시키는 둘레 280m의 저장링 그리고 방출되는 방사광을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이며 유일하기 때문에 사회교육차원에서 포항의 유일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 (3) 생명공학연구센터

효자동 포항공과대학교내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센터는 총 공사비 340억원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03년 완공되었고, 5층 규모의 주건물(일반 실험동)과 2층 규모의 보조 건물(동물 실험동) 온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4,256평이다. 센터 건립비와 연구비 등에 대한 포스코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 민간연구소로는 최대 규모이며, 단기간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자리매김하였다.

극미량의 단백질분석기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수 34명을 비롯하여 박사연구원,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250여 명의 우수한 인력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 (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는 1987년 포스코와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가 전액출연하여 설립한 실용화기술 전문연구기관이다.

신제철공법인 파이넥스(FINEX)와 스트립캐스팅 공법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판재 양산 기술을 개발·상용화했으며, 연료전지를 비롯한 포스코의 신 성장동력사업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5) 포항 테크노 파크

지곡동에 위치한 포항테크노파크는 5만 6천여 평의 부지 위에 조성되었다. 철강도시 포항을 도약시키기 위한 52만 포항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지난 2000년 포항지역 24개 산·학·연·관이 협심 단결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지역주도형 테크노파크이다.

2002년 말 1단계 조성사업의 완공으로 연건평 3,142평 규모의 본부동과 제1벤처동을 준공하였고 창업보육·공동연구·교육훈련·기업지원사업 등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제 2단계 조성사업에 착수한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포항은 첨단기술과 교육·문화·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항테크노폴리스로 발전하면서, 첨단 과학산업의 전초기지·지역기술혁신 및 산·학·연 클러스터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 2) 해병대 특수교육훈련 체험

포항은 해병사단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로서 1960년에는 군사도시로서 지역경제발전을 해왔다. 귀신잡는 해병은 포항이라 할 만큼 지역에 해병대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포항해병인의 축제를 열어 포항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병사단의 교육훈련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정신교육에도 확대되어, 공무원·회사원·주부·학생들까지 체험하고 있다. 포항 해병사단은 현재 해외 교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청소년 중심으로 행하고 있으며 대학·고교생들의 정신교육 훈련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없는 특수교육훈련을 통해 애국심 인내심을 고취시키는 교육계획을 마련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교육관광코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호미곶 해돋이와 국립등대박물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포항은 해돋이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해마다 12월 말일이 가까워지면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를 위해 동해안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동해안의 해돋이 중 백미는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인 포항 호미곶으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제야의 종 이벤트를 시작으로 새해 해돋이 행사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머물고 있다. 그러나 주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과 혼잡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맞이 이후 등대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나 시대적 변천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항로표지 관련물품을 유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립등대박물관은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해양사상을 보급하는 산 교육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등대 전문박물관으로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포항시 대보면 대보리에 위치한다. 부지 27,416㎡에 1차와 2차에 걸쳐 두 동의 건물이 건립되었다. 1985년 2월 개관하였고 1986년 4월

문화공보부 제13호 준박물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박물관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전시관(해양수산물), 제2전시관(등대관), 수상전시관, 테마공원, 기획전시관, 전망대 및 등대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대 및 해운항만자료 3,000여 점 중 50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 수상전시장에는 실물을 축소한 영일만과 포항항 전경 모형과 울릉도, 독도 전경 모형이 있다.

등대박물관과 같이 붙어있는 1903년에 세워진 호미곶 등대는 1985년 5월 도지정 지방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으며, 높이 26.4m, 밑부분 24m, 윗부분 17m로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만 쌓아올린 것이 특징인 내부 6층 규모 건축물이다. 특이한 건축양식으로 인해 오늘날 건축 관계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겉모습은 8각형의 탑 형식으로 근대식 건축양식을 사용하여 지었는데, 각 층 천장마다 조선왕실 상징인 오얏꽃 모양 문장이 조각되어 있다.

매년 1월 1일 정초에 해맞이 관광객이 모이는 호미곶 등대는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 박물관으로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 4. 기 타

### 1) 영일일월지

오천읍 용덕리 해병부대 안에 위치한 일월지는 1997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옛날 신라시대에는 ‘해달못’이라고 불리었으나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한자식으로 ‘일월지’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못이라 하여 ‘천제지’ 또는 해와 달의 빛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여 ‘광복지’라고도 불렸다. 직경 250m, 폭 150m이며 매년 10월 포항시장이 초헌관이 되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일월신제를 일월사당에서 올린다.

### 2)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거주지였던 남구 구룡포 읍내 장안동 골목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100여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시청률을 자랑했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일본거리를 촬영 때 이곳 구룡포 읍내 장안동 골목이 현장 촬영셋트로 이용되었고, 최근 MBC 드라마 ‘2009 외인구단’에서도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어 고향을 찾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옛 가옥에서의 불편에 따른 개축, 수선되지 않은 외관, 무너져가고 있는 가옥들이 옛 명성을 무색하게 하며,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은 몇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간을 되



돌려놓은 듯 1900년대 초반 한국 속에 자리잡은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으며,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면 가옥 뒷산에 일본인들이 조성한 공원이 있고 선원들의 무사고를 빌었던 용왕당도 볼 수 있다. 포항시가 2009년 목표로 삼은 ‘일본인 관광객 1만명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나고야 중부일본방송국(CBC) 등 언론매체에서 구룡포 일본가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거리 복원 및 정비사업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 3)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2002년에 건립된 용흥동 용흥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전국에서 이 곳 하나뿐이며, 1950년 전쟁 당시 희생된 김춘식 외 47명 학도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넋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전몰학도충혼탑은 1950년 숨진 학도들의 시체를 가매장했던 장소로, 이후 56년이 흐른 2006~2007년 김석원 장군이 “학생들의 고운 넋을 그냥 두고는 죽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하겠다”며 유골을 수습, 국립묘지에 안장한 역사적인 자리이다. 부지 4,062㎡에 연건평 903㎡의 지상 2층 규모로 교육관, 전시실, 영사실, 관리실이 완비되어 있고 학도의용군의 유품과 주요 활약상을 담은 사진 등의 관련 자료와 디오라마 등 95점이 전시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하며, 2006년 12월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전국 33개 주요 기념관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1위 백범 기념관, 2위 이강년기념관에 이어 3위로 평가되었다.

### 4) 덕실마을

덕실마을은 예와 덕을 중시하는 충절의 고장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덕실마을로 불려졌다. 덕실마을은 이명박대통령의 선친은 물론 11대조부터 300년간 살아온 유서깊은 곳이다. 유적으로는 경주 이씨 덕실 입향조를 추모하는 이상재(履霜齋)와 담화정(澁和亭)이 있다. 이곳은 당대 선비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곳으로, 그들의 학문 수준이 매우 높아 인근의 달전·흥해·기계·청하 지역의 재지사림(在地士林)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지금도 많은 고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유학자들의 학문경지를 엿볼 수 있다.

### 5) 만세촌의 3.1의거 기념관

송라면 대전리 280번지 속칭 ‘만세촌’에 위치하며 3.1의거 당시 태극기를 제작하였던 장소에 ‘대전 14인 3.1의사 유족회’ 이병찬 회원의 부지를 제공받아 포항시가

건립하였다. 한 마을에 14인의 3.1의사가 나신 곳으로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마을이며, 1919년 3월 22일 청하 장날에 대전리 일원에서 윤영복 등 23명이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주동자 14명이 체포·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일제가 마을을 압박하여 80호가 넘는 가구수가 50호로 줄어들었고, 현재 이 마을에는 의사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3.1동지회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001년 준공한 3.1의거 기념관은 부지 258㎡ 연건평 82.53㎡의 지상1층 규모로 총 사업비 270백만원이 투자되었다. 2005년에는 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이준석 의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이로써 전시실·관리실·독립운동가의 생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들의 유품·판결문·훈포장 등 관련자료가 102점 전시되어 있으며, 대전리 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념하고 님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있다. 매년 삼일절을 기해 대전리 3.1만세촌 문화제를 포항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개관한다.

## 6)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매년 6월 초 포항시가 주최하는 포항해변마라톤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포항의 해안 절경과 역동적인 파워풀 포항(Powerful Pohang)을 널리 알리고, 포항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국민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개최하고 있다. 경기종목은 5km 건강달리기, 10km 단축마라톤, 21.0975km의 하프마라톤 3종목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와 완주메달·간식을 제공하며 소정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단결상·화합상·잉꼬상·건강상·행복상 등 특별상도 있으며,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북부해수욕장에서 환호해맞이공원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를 따라 일대 장관이 연출된다. 2009년에는 일본 자매우호도시인 후쿠야마·쇼에츠시 등의 일본마라톤 동호인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5~6월에 개최되던 것을 일시 변경하여 9월로 연기하였다.

## 7)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시와 포항바다국제연극제(PBITF, Pohang Bada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진흥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경상북도·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연극협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축제이다. 2001년 시작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연극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무더운 한여름 저녁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환호해맞이공원 내 4개 야외무대·북부해수욕장 선박극장·형산강체육공원 등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철강산업 도시로만 인식되던 포항의 이미지를 ‘산과 바다 그리고 문화와 인간’이라는 예술문화도시로 위상을 제고하는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연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공연예술을 포항시민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포항지역의 여름철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타 지역문화축제에서 보여주었던 단순한 소비지향적인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내와 해외의 우수한 공연단체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점차 그 규모를 확대·발전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바다연극축제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에 축제가 열리므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차원에서 그 역할이 크며 관광산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 8) 포항시티 투어(city tour)

포항관광 시티투어는 포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과 포항시민에게 여행의 불편을 덜고자 (주)영일만 관광과 제휴하여 매주 토·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시티투어(City Tour)이다. 3월 초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포항역 광장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한다.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식대는 자비 부담이며 참가신청비는 3천원이다. 7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토요일은 포스코역사관→지능로봇연구소→포항공대→덕동문화마을→경상북도 수목원→죽도시장 순으로 관광하고, 일요일은 포스코→보경사→내연산 연산폭포→사방기념공원→덕실마을→죽도시장을 탐방한다.

포항시와 코레일(철도공사)이 마련한 ‘재래시장 테마관광열차’가 타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포항시와 코레일은 2009년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코레일은 관광객을 모으고, 포항시는 이들이 편안하게 쇼핑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4월 중순 충북지역에서 520명이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3,500여 명이 포항을 찾았다. 테마관광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제공하는 버스에 올라 호미곶에서 일출을 본 뒤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동해안 최대 수산물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포항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잠정 조사한 결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장보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한 달 보름동안 이들이 죽도시장에서 사용한 돈만 3억 원을 웃돌아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영광, <환동해시대의 포항관광산업 마케팅에 관한 연구>, 1998.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99.  
한영광, <포항지역 뉴밀레니엄 파크조성과 마케팅 전략>, 대구경북마케팅학회, 1999.  
한영광, <21세기 환동해시대에 대응한 포항발전(포항해양관광중심으로)>, 한동대학교 국제심포지움, 2003.  
포항시,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2004.  
송희연,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지역 통합의 꿈과 현실, 동아일보사, 2004.  
명형욱, <포항주변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보건 수준에 대한 비교·조사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안광호, 한상란, 《유통원론》, 학현사, 2005.  
홍철외, 《포항, 이제 어떻게》, 새암, 200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7.  
포항시 해양수산물, 해수욕장 이용현황, 2007  
이석희, <글로벌포항을 선도할 포항발전 방향과 과제>, 포항시영락포럼, 2007.  
포항시, 《포항시정백서》, 2008.  
포항시, 《포항통계연보》, 2008.  
동해수산물연구소 정책홍보과 보도자료, 2008.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지구 개발(최종보고서)》, 2008.  
포항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 2008.  
한영광외, <경북동해안권 발전구상>, 대구경북연구원, 2008.  
포항시, <경북동해안권 발전과 신동해안시대>, 대구경북연구원 포항시 심포지움, 2008.  
포항시 동반내항복원팀, 주요업무계획, 2009.  
포항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2009.  
포항시 문화관광과, 포항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